



효과적인 강의평가의 모색

허 형 |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I. 강의평가와 교육의 수월성

대학 교수의 '강의'는 '대학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교육에서 수월성 추구는 곧 교수의 강의 질에 달려있으며, 따라서 '대학의 전체는 곧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과 가르치는 사람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학 교수의 강의평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교수의 강의를 지나치게 내용 전달식 또는 지식 전달식의 주입식 강의의 약물 중독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병폐의 자각 증세마저 느끼고 있지 못하다느니, 교수는 한낱 '말하는 책'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느니, 또는 학점은 잘 나오지만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모두 대학 교수의 강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었다.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대학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비판이 있었다. Robert Ogilvie(1962)는 주입식 강의만을 주로 하는 교수들로 가득 찬 대학을 보고 "정보와 지식이 소매되는 주입식 가게들로 가득 찬 백화점

건물"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이러한 백화점 건물과도 같은 것들을 언제까지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자학적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은 교수의 강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찬성과 비판의 견해가 심각하였으나 결국은 모든 대학들이 강의평가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강의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수백 편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학들이 1980년대부터 절박한 사회문제와 기술혁신의 요구에 기민하게 실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고, 대학의 구조조정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육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수의 강의평가는 핵심적인 사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의 대학들은 과거의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의 우수한 대학들을 제치고 전 세계의 학생과 기업이 선호하는 지식과 기술의 인큐베이터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II. 강의성과를 위한 다면적 평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의 강의평가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와 실시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

되었다. 물론 1982년에 한국대학교육협회의 연구비에 의해서 '대학수업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이성진 등, 1982)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평가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대학종합평가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강의평가는 주로 학생에 의한 평가가 대부분이며 5단계 척도에 의한 평가로, 이 점수를 교수들에게 통보하여 강의에 참고하게 하거나, 최근에는 이 자료가 교수의 여러 가지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 교수의 강의평가의 목적은 강의의 효과성 판단과 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 재계약 등 인사관리에의 활용이다. 지금까지의 강의평가는 대학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타의적이고 획일적인 평가에 연연하고 있으며, 강의의 효과를 교수 스스로 판단하여 강의를 개선하거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는 데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강의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예술 및 체육계열 등 그 성격과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획일적인 척도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강의뿐만 아니라 실기, 실험, 실습 등 다양한 수업의 형태에 따른 평가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에도 강의평가에만 국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부각된다.

그리고 평가의 주체도 학생에 의한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에 의한 평가, 전공학과 위원회의 평가, 교수 자신에 의한 평가 등 그야말로 강의의 효과성에 의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완, 보충, 피드백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가 수행하는 강의 행태에 대

한 평가뿐만 아니라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학생평가의 실제, 파워포인트·인터넷·웹 등 IT 활용능력, 교실환경 등 강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강의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자기 자신평가(Self-Evaluation)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로부터 자신의 강의를 평가받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시험성적을 보고 자신의 강의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수의 교수들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평가 척도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평가하기도 한다.

교수 자신의 강의에 대한 자기 자신평가는 교수에 관한 인사결정의 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보다는 교수의 강의를 개선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진실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교수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평가는 교수 자신이 자기의 강의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평가하고자 하는 행동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평가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평가가 강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선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 하면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강의를 의미 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또 평가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교직적,

성적인 지식과 구체적인 전문적 교수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교수방법에 관한 지식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적성이 탁월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범 대학이나 교직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또 많은 교수들은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교수라는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 오디오와 비디오 녹화 활용

교수는 자신이 교실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하면서 자신의 목소리, 강의 태도, 강의 내용, 학생을 대하는 방법 등 모든 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강점과 약점도 스스로 평가하며, 자신의 강의를 가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들은 자신이 강의한 녹화테이프를 보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강의 방법 개선을 위해 이를 분석하고, 적절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동료 교수들이나 교수방법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 원한다. 그리고 자신의 강의를 가장 효과적이며 생산적인 교수모형들과 비교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오디오자료보다도 비디오 자료가 더 효과적인 것은 녹화된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와 표정, 반응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교수의 강의를 비디오 녹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수의 동의를 있느냐의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수 자신이 자기의 강의를 비디오 녹화하여 이의 분석과 교정을 통하여 자신의 강의를 개

선하는 방법이다. 어느 대학의 경우는 교수의 강의를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경우에 이를 비디오 녹화하여 이를 동료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에게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을 내리고 부적격 판단이 날 경우에는 강의를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개선할 때까지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교수의 사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주장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두 가지 대립된 갈등에서 대부분 학생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주장이 우세하게 마련이다. 교육의 책무성의 강조이기도 한 것이다.

2. 강의 능력 향상 계약제의 도입

교수의 자기 자신평가는 교수의 강의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각 대학에서는 신입교수를 채용하여 2년간 계약을 한다. 그러나 2년 후에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와 연구논문의 평가를 통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전임교수로 거의 승진이 된다.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배척당한 신입 교수들도 대부분 그대로 승진하는 대학도 있다. 강의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처리된다. 많이 알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못 한다. 많이 안다는 것과 잘 가르친다는 것은 다르다. 소위 실력이 있다는 교수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강의 능력 성장 계약은 신입교수가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기간 동안에 최고 수준의 강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계약이며, 각 교과와 강의 계획과 함께 구체적인 용어로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예산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의

요건에는 전문적 강의 능력 성장의 목표, 구체적인 성취의 측정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계약한 교수는 계약된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기 평가를 수행하여 강의 능력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에 탈락하든가 또는 제2의 계약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능력 성장 계약에는 두 가지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는 계약 교수가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알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계약 교수는 먼저 자신의 강의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에 전문 강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평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그들의 계약서를 이행하고 평가받는 데 있어서 교무처장이나 학장, 학과장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강사나 신입교수는 전문 강의 능력의 소유자로 성장하고 전문 교수가 되는 것이다.

3. 자기 자신평가 결과의 활용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교수의 임용, 승진, 보수 등에 관한 인사관리에 자기 자신평가를 반영한다. 왜냐 하면 자기 자신평가가 인사위원회의 집단적 결정에 있어서 좋은 사정자료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평가는 자기 자신의 약점과 강점에 대하여 솔직한 평가와 설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평가가 인사관리에 있어서 진정한 사정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형식이 요망된다. 전문 강의 능력 성취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제시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약점과 실패에 대한 확고하고 솔직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평가가 전문 강의 능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의 평가 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강의 능력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이며 핵심적인 평가도구이어야 한다.

4. 자기 자신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의 개발

자기 자신평가 도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의 영역은 전공과목과의 일치도와 강의 수준, 학생과의 관계, 전공학문에 관한 전문성 수준, 강의의 포맷과 강의의 실제에 관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설문의 결과는 학과위원회나 학교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공동협의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진솔한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 나온 대담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 교과목과 강의 영역

- 1) 교과에서 자신이 강한 영역은? 약한 영역은
- 2) 교실 수업의 강의에서 가장 장점은? 가장 약점은?
- 3) 당신의 교과목에서 어떤 교수방법이 가장 적절한가? 그 이유는?
- 4) 새로운 강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교수방법을 바꾸는가? 바꾸었다면 그 예는 어떤 것인가?
- 5) 당신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당신의 일차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 당신과 학생들과의 관계

- 1) 당신과 학생들 간의 감정(feeling)을 어떻게 기술하겠는가?
- 2) 강의실 분위기를 어떻게 기술하겠는가? 당신은 만족하는가?
- 3) 당신과 솔직한 불일치를 용인하는가?
- 4) 학생들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는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표현하는가? 언제인가?
- 5) 당신의 학생들은 당신에게 비꼬거나 빈정대는가?

■ 자기학문 분야의 지식

- 1) 당신의 학문 분야에서 첨단을 따라가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가?
- 2) 당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에서 당신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 3) 당신의 동료 교수들은 당신 자신의 평가에 동의하는가?
- 4) 당신 학문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깊게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 강의실제에 관한 질문

- 1) 당신의 학생들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동료 교수들로부터는?
- 2)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은?
- 3) 강의하는 데 있어서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 그 이유는?
- 4) 학생들이 배우는데 있어서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5) 당신의 강의에서 가장 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 6)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무엇을 해왔는가?

- 7) 지금부터 10년 후에 교수로서의 당신에 대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기억해 주길 원하는가?
- 8) 전반적으로 당신은 교수로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동료 교수들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학생들도 인정하는가?
- 9) 어떤 과목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10) 지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당신의 강의는 어떤 방법으로 변화해왔는가?
- 11) 그러한 변화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인가? 왜 그런가? 아니라면 왜 아닌가?

IV. 강의평가에 추가할 새로운 분야

교수의 강의를 학생들에 의한 평가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강의평가 도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강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완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가 문항이 종합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가 객관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교수가 부여하는 과제의 양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신뢰도와 내적타당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논문도 많다(Mckeachie, 1979; Overall과 Marsh, 1982).

따라서 학생들의 평가 이외의 다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강의계획서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대학들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강의계획서를 사용하지

만 이는 전공과목과 각 교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서를 만들기 어렵다. 강의계획서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하여 강의계획서부터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의계획서는 학과나 학교의 전문위원회에서 평가하게 하거나 같은 학문단위의 동료 교수들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상당한 정도를 강의계획서의 수준에 따라서 강의의 수준이 달라진다.

둘째, 웹을 사용하는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당히 많은 교수들은 자신만의 홈페이지나 전용 웹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상당한 강의 내용을 전달하거나 수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한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하여 강의의 상당한 내용은 동영상과 텍스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교육하고, 오프라인의 실제 수업에서는 이미 웹을 통하여 예습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해결 학습이나, 토론, 발표 등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셋째, 중간고사나 학기말 고사 등 각종 평가 문제나 평가 자료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평가활동이 합리적인가에 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V. 교수강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강의를 개선하고 향상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 교수들은 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사범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교직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대학 교수들은 지금까지 자신

이 배워온 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강의를 시작하지만 그 가정은 틀린 가정이다. 효과적인 강의를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각 대학의 교수학습센터를 설립하고 교수학습 이론 전문가와 교육공학 전문가를 채용하여 대학 교수의 강의를 개선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교수들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나, 교수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그 효과도 미약하다.

먼저 대학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은 효과적인 강의를 어떤 강의인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후에 강의평가 자료를 개발하여 이를 각 교수에게 인지 시킨 후에 강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강의의 효과가 있는지도 항상 점검하고 교수의 강의 참여 수준도 평가항목에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센터에서는 웹 보조 수업체제를 개발하여, 웹을 이용한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강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웹에 저장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접하여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나 발표, 실습, 문제해결 학습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 수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저명한 웹 사이트를 연결하는 등 교과관련 지식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VI. 교수강의평가에 관한 마지막 말

첫째, 강의평가는 복잡한 과정이며, 단일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학생, 동료 교수, 행정가, 교수자신의 평가 등 복합적이며 다면적인 평가를 통하여 그 신뢰성과 타당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둘째, 강의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강의평가에 앞서 효과적인 강의 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평가에 관한 종합적인 교본이 먼저 개발되어야 하며, 교수들이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이 교본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인문대, 자연대, 공대, 의대, 예술대, 음대 등 다양한 영역의 강의와 실습, 실기, 실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의 준거(criteria)와 표준(standards)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평가준거와 표준은 구체적이며 행동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기술하여 대학의 모든 교수와 강사들에게 제공하여 그들에게 익숙하게 해야 한다.

넷째, 강의평가는 과정인 동시에 결과이어야 한다. 각 과목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효과적인 강의를 되려면 어떤 강의를 되어야 하는지 이를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구체적인 과정, 결과가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

다섯째, 강의평가의 시작은 개인 교수의 '강의계획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의계획서의 내용에는 강의의 구체적인 목표로부터 교재, 강의 방법, 과제, 발표, 평가 방법 등, 그 강의의 모든 것이 세세하게 수록되어야 한다.

이는 강의의 섬세한 청사진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마련한 한 두 쪽의 획일적인 양식으로는 다양한 강의의, 다양한 교수의, 다양한 강의 방법을 모두 담을 수 없다. 강의계획서는 각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공연할 작품의 설명서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 강의계획서는 자유롭게 작성될 수 있어야 하며, 강의계획서만 보면 그 강의의 50% 이상은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평가의 결과는 그 교수의 승진, 재계약, 각종 혜택 등 인사관리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의 결정은 타당한 방법으로 신중하게 해야 하며, 철저한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허형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앙대학교 교무처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연구교수, 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교육평가』, 『배아제의 형식 조작적 사고력 개발 연구』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